

홀트소식

SPRING 2023 VOL.208





봄 이야기

두 발달장애인 김요한(아래), 박순구(위)씨는 지난해 50여 년을 살아온 사설을 떠나 그들만의 새 보금자리에서 자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잔잔하면서도 유쾌한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관련 기사 10쪽)



Contents

가족을 찾아주고

- 04 홀트씨의 거룩한 실천이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 06 정체성을 발견하는 긴 여정의 끝, 이제는 나의 행운을 나누려 합니다

가족을 지켜주고

- 10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 12 장애와 절망 딛고 희망을 쓰는 ‘휠체어농구단’을 응원합니다
- 14 세상을 향해 똑똑(Knock-Knock) 두드린 진아씨 드디어 날개를 달다

가족이 되어주는

- 16 전국체전 1위에 실업팀 입단까지 “내 꿈은 챔피언!”
- 17 ‘허브’의 사랑으로 성장한 너희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 18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할 꿈을 품고 있어요”
- 20 ‘파랑새, 꿈날’ 4기 멘토에 이어 6기 멘토가 되기까지!

나눔스토리

- 22 ‘더불어 나누는 삶’이아말로 진정한 행복의 통로
- 24 초콜릿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 러닝으로 행복을 나눠요
- 26 가족을 만드는 마음으로_제로퍼제로 일러스트 재능후원
- 28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돕는 마음’

- 30 2022 운영결산 보고
- 32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08호·계간 발행일 | 2023년 4월 18일 발행인 | 김정오 편집인 | 이수연
발행처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홈페이지 | www.holt.or.kr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lan@holt.or.kr 디자인 | 일투디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스티브 모리스(한국입양홍보회 이사)
감 사 장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홀트씨의 거룩한 실천이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입양업무 국가이관 및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홀트의 입장과 제언



“입양특례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이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상반기부터 개정이 예고되었던 이 법은 올해로 넘어와 현재 4월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해 오던 국내·외 입양을 국가 주도로 수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되는 입양특례법을 환영하며 입양업무를 이관하는 후속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1955년 전쟁이 끝난 후 부모 잃은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입양업무는 6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록 시대마다 입양관련 법과 제도적 절차는 바뀌었을지언정 입양기관이 입양대상 요보호 아동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만큼은 변하지 않은 채 긴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현 시점에도 입양기관으로 의뢰되는 아동들은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속하지 않는 까닭에 입양기관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가 심하여 입양가정을 찾지 못한 중증 장애아동 몇 명은 생계비, 장애수당 등 복지사회 국가의 어느 기본적인 혜택도 없이 온전히 입양기관의 책임 하에 청소년기에 도달하였습니다.

“왜곡된 기사들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인생 성공 스토리에 소개되는 몇몇 입양인이 전체 입양인을 대표하지 않듯 불행한 인생을 겪은 입양인이 전체 입양 역사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입양에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상실과 슬픔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시 입양을 수행한 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거나, 입양 후 서비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거나, 신분세탁의 불법을 자행했다는 등, 근거 없이 쏟아지는 왜곡된 기사들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지만 사실에 대한 설명이 자칫 입양인과의 다툼으로 비춰질까 염려스러워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커진 의혹은 해외입양인의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권력 개입 조사 요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지난해 11월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입양에 어떤 부정이 개입되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의 조사 과정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는 진심을 다해 이 과정에 응할 것이며, 그 당시 아동이 입양된 것이 '사랑받고 살 수 있는 가정을 갖는 것' 이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는 진실도 함께 규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요보호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국내입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입양관련 정책에 대해 바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입양은 사멸되어서는 안 될 요보호 아동을 위한 핵심적인 아동복지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새 법과 체계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제 입양기관이 가졌던 노하우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대로 이식되어 국내 입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명확한 유전적, 후천적 정보가 입양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회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에 의료문제나 배경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정이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30명으로, 각 아동별로 더 나은 미래 대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일생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기에 빠지면 전체 삶이 빼격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회복지기관과 다르게 입양기관은

아동과 그 가족 전 생애에 대한 관심과 책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양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입양이 종료된 수년 후라도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회가 신념처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회는 이런 연장선 위에서 앞으로도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처지의 아동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가족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설립자 해리 홀트 씨 부부의 거룩한 실천이 이 땅의 아동복지 역사에 올바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요보호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이수연

“정체성을 발견하는 긴 여정의 끝, 이제는 나의 행운을 나누려 합니다”



입양인 차민근(디엔코리아 대표이사)의 삶에 녹아든 입양 이야기

영화배우 수현의 남편이자 세 살짜리 ‘딸바보’ 아빠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차민근(영어 이름 매튜 샴파인). 1982년 갓난아기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뉴저지의 어느 평범한 가정으로 입양된 그는 24살 때 한국을 방문하며 다시 한번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삶에 녹아든 입양과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40여 년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 2019년 12월 결혼식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차민근 대표와 그의 아내 수현

저는 1982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차덕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제 친생 부모님의 성함 한 글자씩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의 위탁가정에서 잠시 돌봄을 받다가 뉴저지의 어느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튜 제프리 샴파인(Matthew Jeffrey Shampine)이라는 이름으로 23년 동안 아름다운 뉴저지 남부 지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게 ‘차민근’이라는 다른 이름이 주어졌지만, ‘차덕수’로서의 삶을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다

입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제 미국 부모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두 분은 헌신적으로 일하며 제가 경제적으로 결핍을 느끼지 않고 성장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식료품점 매니저로 일하던 아버지는 부업으로 목수 일과 새벽 신문 배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양된 후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의 양육과 집안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를 입양한 직후에 두 명의 자녀를 더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겠지만요.

제 유년 시절은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좋은 친구들, 그들과 함께 만든 멋진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제가 가족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사건들도 가끔 있었답니다.

동양인을 향한 전형적인 조롱과 놀림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제 눈이 너무 작아 콘택트렌즈를 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검안사와의 해프닝처럼 단순 무지했던 탓에 발생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가득한 이 사회에 잘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지냈습니다. 스스로 백인이라고 확신하고 살다가도, 막상 거울을 들여다보고 남들과 다른 제 모습을 직면하던 어릴 때의 순간들이 문득 기억나네요.



▲ 입양가정의 형제자매들과의 어린 시절

대학생이 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한국인들, 한국계 입양인들, 그 외 아시아인들까지...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들과 자주 마주치면서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동양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탐구심은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때론 절박한 상심의 순간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대학 기숙사 방에서 남몰래 젓가락 사용법을 익히거나,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뿌리를 찾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며 느꼈던 마음속 깊은 불안감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잊고 당시 교제하던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하키를 즐기던 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완전한 미국인 자아를 고수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 고교 하키팀 단체사진(첫째 줄 가운데가 차민근 대표)

상상도 못 했던 친생부모와의 감격스러운 상봉

2007년은 제 모든 것이 바뀐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스물네 살이었고 대학원 공부와 일, 공직 출마, 그리고 친구를 잃은 슬픔까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가 난생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7개국 약 600명의 입양인으로 구성된 세계한인입양인대회(IKKA)에서 주최하는 콘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그해 여름쯤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생모를 찾을 수 있는지 홀트에 문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어머니를 찾아 제가 쓴 편지가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상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제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땠는지 물어보지만, 어떤 말로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야 할지 지금도 망설여지곤 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은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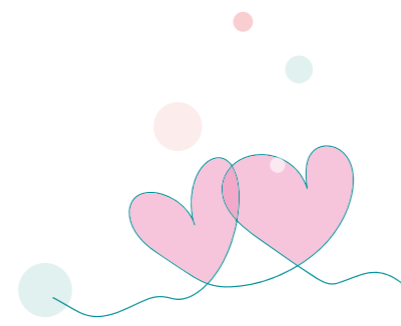
그렇게 저는 친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에 다른 가족들도 만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 조카, 사촌, 그리고 약 2년 뒤 마침내 친생부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짧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 가족들과 저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자 서로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차민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비로소 족보에서 제 형제들과 관계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축복

위워크(글로벌 공유오피스 기업)와는 사업 초기부터 인연이 닿아 감사하게도 아시아 지역의 조직 확장을 이끌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위워크 코리아 지사장으로 있을 때 주최했던 행사를 통해 아내 수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행사 1년 전, 친구로부터 행사 진행자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 받았는데, 준비과정의 길어지며 저와 수현은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그동안 공들인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 여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비영리 단체에 미화 6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우리 회에 방문한 스타트업 DONGNAE(동네) 임직원들과 함께

▼ 위워크 코리아 주최로 열린 크리에이터 어워즈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차민근 대표



같은 해 여름, 저는 친구, 가족, 반려견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깜짝 청혼을 했고, 5개월 후 저희는 전 세계에서 찾아와준 친구들과 특히 미국과 한국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친아버지와 양아버지를 대신해 두 분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제 가족을 대표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시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완전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제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는 긴 여정에서 겪었던 어색함, 어려움, 성장통 등 모든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듬해 저의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들 하는데, 저는 입양인으로서 조금 더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인지, 아니면 저와 너무나도 다르게 생긴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를 닮은 딸이 태어난 후로는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감정과 생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축복입니다.

결코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이 가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3년 전 위워크를 떠나 몇몇 동료와 함께 '동네'라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차렸고, 앞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단체와 사람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되었거나 보육원에서 성장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매 순간 항상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홀트아동복지회와 그곳에서 매일 진심을 다해 일하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든 직원분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받고 누렸던 모든 행운을 저 역시도 베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획특집 ①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김요한 & 박순구 두 발달장애인의 ‘따로 또 같이’ 유쾌한 홀로서기

순구씨는 한 살, 요한씨는 여섯 살 때 각각 부산에서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까지 와서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이곳을 떠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는 그저 개인의 특징일 뿐 병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2022년 7월 타운식당에서 축하파티가 열렸습니다. ‘홀트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보이고 머리가 희끗한 두 중년 남성이 연신 흥얼대는 콧노래 소리도 들립니다. 문이 열리자 손에 손에 선물을 들고 타운 식구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 봄나들이 나온 순구씨(왼쪽)와 요한씨(오른쪽)

이 날은 홀트타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김요한씨(63세)와 박순구씨(53세)가 타운을 나와 일산 중심가에 동지를 틀고 서로 의지하며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해 떠나는 날입니다.

“잘 살아. 자주 놀러 오고” 같은 방에서 살던 정인이 형이 5천 원을 넣은 돈봉투를 건네며 악수를 청하자 요한씨가 활짝 웃으며 “놀러와요, 내가 삼겹살 구워줄게”라고 화답합니다.

요한씨와 순구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평생을 살아온 습관이라 게으름을 모릅니다. 순구씨는 일어나자마자 전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반찬을 접시에 담고 밥을 푸면서 TV 앞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요한씨를 부릅니다. “요한이 형. 얼른 와 밥먹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뉴스를 시청하며 아침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면 순구씨보다 출근시간에 좀 여유가 있는 요한씨가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여느 집 아침 풍경과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평화로울지도 모르지요.

수십년의 시설생활을 끝내고 용기 내어 홀로서기를 한 두 사람은 생김새만큼이나 성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순구씨는 사람에게 좀처럼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탓에 주변의 모든 것을 두렵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탐색의 시간이 길다 보니 순구씨의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돌발상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씨는 사회성이 좋아 누구하고도 금방 친해지고 위트가 있어 그의 주변에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좋아하



▲ 순구씨가 아침상을 차리면 요한씨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합니다.



▲ 설거지 담당인 요한씨가 말끔히 식탁을 치웁니다.



▲ 목욕 후 마시는 바나나 우유는 그들 삶의 작은 활력소

는 여자가 생기면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선물을 사주는 열정적인 요한씨는 틈나는 대로 자전거를 타고 집 주변 호수공원을 돌고 또 돕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입니다.

특수학교인 홀트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보호작업장에 취업해 평생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순구씨는 요령을 피울 줄 모릅니다. 그저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요한씨 역시 뒤늦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인 국립암센터 급식실(동원홈푸드)에 취업하여 하루도 늦지 않게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요한씨도 요령을 피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1년 계약연장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약속 지키기와 배려입니다.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는 요한씨지만 함께하기로 한 저녁식사 시간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순구씨도 분담하기로 약속한 집안일을 상대에게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각자 일터로 떠납니다

토요일이면 요한씨는 미술학원, 순구씨는 핸드벨학원에서 자신들만의 힐링시간을 갖습니다. 일요일엔 공동의 여가활동을 즐깁니다. 집 근처 교회에 갔다가 브런치도 하고 브런치가 끝나면 목욕탕에서 세신도 하고, 목욕 후에는 꼭 바나나 우유를 마십니다. 때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볼링도 치러 갑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보도블럭과 튀어나온 턱들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졌던 순구씨에게 요한씨는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순구씨는 비가 와도 눈이 쌓여 있어도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려는 요한씨를 위험하다고 만류합니다.

오늘 아침 순구씨는 전화를 걸어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고, 요한씨는 순구씨의 잔소리를 피해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이 두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무연고 장애인 퇴소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가정이 되었고 이제는 그들과 이웃이 되었습니다.

글 홀트일산복지타운 자립지원팀 김나용

▼ 국립암센터 급식실에서 일하게 된 요한씨



▼ 브런치를 즐기러 찾은 동네 단골 카페 사장님과 찰칵!



장애인의 날 기획특집 ②

장애와 절망 딛고 희망을 쏘는 '휠체어농구단'을 응원합니다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은 1986년 2월 장애인 재활을 위한 동호회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애인 스포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큰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의 전성기였던 2015년에는 소속 선수가 무려 9명이나 되었고, 여러 경기에서 우승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많은 중도장애인이 이곳에서 처음 휠체어농구를 만나 실업팀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활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 선수들. 각자 포지션을 맡아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휠체어농구의 '대표 아이콘'이라는 자부심과 패기로 여러 차례 경기에서 승리하며 농구 팬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운동은 중도장애인에게 새로운 시작

평범했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된 중도장애인들은 갑자기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커다란 삶의 변화로 절망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잃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할 전환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운동을 선택한 중도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어려움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절망을 떨쳐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운동을 통해 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휠체어농구는 여러 명의 선수가 코트 위에서 소통해야 승리할 수 있는 팀 스포츠입니다. 혼자서 아닌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며 또 다른 삶의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필요

올 4월 18일에 개최되는 '고양특례시장컵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해야 할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은 현재 이리저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업팀이 아니라 주중에는 선수들 각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만 모여 훈련받는 비실업팀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지원금이 일정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대회 참가비, 장비 유지비, 훈련에 드는 비용 등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부상의 원인이 되는 노후된 경기용 휠체어를 수리하고, 꼭 필요한 의료용품과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안전한 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이 코트 위에서 활기찬 경기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휠체어 위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평범한 '기적'

비실업팀인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은 처음 운동을 접하는 중도장애인을 환영합니다.

각기 다른 삶과 다양한 경로로 장애를 입은 누군가에게 휠체어농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원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걸거나 일어설 수 없게 되었어도 절망이 아닌 기쁨을 느끼며 일상을 사는 기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 휠체어농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 나눔기획팀 오진희



▲ 고양특례시장컵 제28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초대장



세상을 향해 푹푹(Knock-Knock) 두드린 진아씨 드디어 날개를 달다

고운뜰에서 지내며 영어 통번역사에 도전,
취업의 꿈 이룬 한부모 진아씨의 분투기



2021년 어느 날, 서른 살인 엄마 진아씨(가명)는 16개월 된 여아를 데리고 고운뜰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타인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던 아이는 달라진 환경에 크게 불안해하며 엄마에게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쉽게 허락되지 않아 적응 기간도 다른 아동보다 더 필요했습니다.

진아씨가 한동안 아이 돌보는 일에만 매달린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씨 역시 매주 1회씩 진행되는 상담을 통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인 슬픔을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 아이와 함께 수족관 나들이 중인 진아씨



진아씨 영어 통번역사에 도전하다

잠시도 엄마와 떨어질 줄 몰랐던 아이의 상태가 돌보미 선생님께 말길 정도로 좋아지자, 진아씨는 그동안 꿈꿔왔던 영어 통번역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지만, 더 심도있는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진아씨는 고운뜰의 지원으로 인근 대학교 평생교육원 ITT 영어 통번역 자격증 과정을 신청해 집중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이 컸던 만큼 남는 시간에는 최대한 공부에 집중했고 6개월 만에 법무부가 공인하는 ITT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원 관내 영어 통번역사 채용 공고가 뜨면 회사에 원서를 넣고 면접 보는 과정을 되풀이했지만 항상 면접에서 탈락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아씨는 미혼 엄마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서울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씨 긴 두드림 끝에 취업에 성공하다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고생을 보답받았다는 감격스러움과 서울까지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회사생활 자체가 낯설게 느껴진다며 처음에는 무척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다행히 입사 10개월 차인 지금은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회사생활에도 많이 익숙해져 초기의 긴장은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그래도 한부모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2~3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플 때면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놓곤 했습니다.

진아씨 회사에서 인정받는 선배가 되다

회사에 후배가 들어오고, 진아씨는 차츰 일 잘하는 선배가 되어갔습니다. 처음보다 자신감도 붙고, 회사 대표로부터 인정받으며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사한 지 7개월 만에 성과급도 받고 새해부터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것에 보상받은 듯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시설이 아닌 독립된 공간으로 나가기 위해 보금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나,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문이 올라올 때마다 LH에 꾸준히 접수하고는 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집을 찾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한부모를 응원하며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나아가 직업까지 갖는 것은 결코 녹록

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보다 몇 배나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한 엄마, 아빠입니다. 이러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진아씨는 자립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로부터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격려받은 것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언제나 “엄마!” 하고 달려오는 딸을 두 팔 벌려 안아줄 때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아씨는 다른 한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준 한부모들에게는 주변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글 고운뜰 김정숙 원장



전국체전 1위에 실업팀 입단까지 "내 꿈은 챔피언!"

'꿈동이' 교육비 지원으로 복싱선수의 꿈을 이룬 성수 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는 '꿈과희망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그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05명의 꿈동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제52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딴 모습



경찰관과 소방관을 꿈꾸던 성수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우수했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방향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꿈동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며,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성수는 복싱선수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수는 고등학교 내내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수차례 입상하더니 전국체전 1위라는 놀라운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2년 말 복싱 실업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으로부터도 입단 제의를 받을 만큼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실업팀 입단을 선택했습니다.

성수는 앞으로 복싱 챔피언이라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동이' 김성수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후원을 통해 제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복싱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만큼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드림"

우리회는 앞으로도 성수와 같이 힘든 가정형편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서정기

'허브'의 사랑으로 성장한 너희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결연 종료 아이들의 감사글과 후원자님의 격려글

올 2월 총 11명의 결연 아이들이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지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홀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응원하는 마음까지 가득 담은 졸업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후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곳곳하게 성장해준 아이들의 이야기와 '허브'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허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결연아이들 이야기

지우(가명)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으로 금전적, 정서적으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을 통해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올해 지우는 목표하던 학과에 입학하여 설레는 대학생살을 할 예정입니다. 지우는 오랜 기간 함께 해준 후원자님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후원자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꼭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될게요."

혜정(가명)이의 가정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이는 후원자님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으며 좌절하지 않고 꿈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대학교 미대에 붙은 혜정이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신 후원자님께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후원자님, 올해 저는 대학생활을 할 생각에 정말 두근대요.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학교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이야기

주○○후원자님은 오래전 암 판정을 받은 후 '남은 인생 봉사라도 하자'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지우(가명)와는 4년 동안 함께하며,

아동이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늦둥이 막내 딸 같은 지우의 안부를 묻고, 꾸준히 아동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며 깊은 인연을 이어나가신 후원자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지우가 목표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암을 진단받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차례로 뛰는 절인 3종 경기 코스를 완주하며 워낙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우도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며 열심히 살아나가길 응원합니다."

졸업과 또다른 출발을 축하해!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후원자님의 동행으로 어느덧 더 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기대처럼 늘 매섭게 걸음을 그리고 앞으로 꽃처럼 예쁜 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국내결연 '허브'는 저소득가정, 미혼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에 들어가기까지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되어줄게' 캠페인을 통해 도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 사회공헌팀 김호인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할 꿈을 품고 있어요”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 3년간의 성과-케코 지역의 바람직한 변화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테메게구 케코 지역은 탄자니아의 수도 다레살렘의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슬럼가입니다.

이곳에 사는 빈곤 가정은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의식주 환경에 놓여 있으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도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케코 지역에는 많은 한부모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혼모입니다. 지역 내 아이들의 상당수는 영양실조 상태이고 학교 결석률이 높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케코 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과 빈곤 가정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아동교육 사업으로는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 아동 94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도, 점심급식, 학습용품지원, 건강보험지원, 학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한부모 여성가장 자립지원 사업으로는 케코 내 한부모 여성가장 20명을 대상으로 무이자소액대출, 공동급식사업, 금융문해교육, 지역사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제 아들 존슨은 홀트센터를 통해 방과후 수업과 점심급식,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지원 받았어요. 특히 건강보험 덕분에 적기에 병원치료를 받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죠. 사업에 참여한 이후 학급에서 100등 정도였던 성적이 이제는 7등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존슨은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할 꿈을 꾸고 있어요.”

- 아동교육 사업 수혜 아동의 어머니

“



“저는 고향을 떠나 이 지역에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이후 남겨진 4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혼자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운 좋게 홀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양한 창업기술과 비즈니스 교육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수입이 늘어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는 곳이랍니다. 그 후 저는 돈을 좀 더 모아 집안에 상수도를 연결시켰고 물 판매 사업을 시작해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채소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삶을 변화시킨 홀트 사업에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자립지원 사업 참여자



▲ 워터파크와 놀이동산 현장학습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된 탄자니아 아동 및 한부모를 응원하며 홀트아동복지회는 2023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으로 더 많은 아이와 가정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복지팀 지미경

'파랑새, 꿈날' 4기 멘토에 이어 6기 멘토가 되기까지!

윤다운 멘토의 '꿈날' 멘토링 활동 후기와 소감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꿈날')은 2년간 시설청소년들을 위한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멘토링 지원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멘토링 활동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후 멘티인 시설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시행된 파랑새, 꿈날 4기에도 다양한 성향과 관심사를 가진 멘티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주시는 19명의 멘토들이 계셨기에 멘티들은 조금 더 즐겁게 자립의 준비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파랑새, 꿈날 4기 멘토 활동을 잘 마치고, 2023년부터 시행될 6기 멘토로 다시 지원한 윤다운 멘토의 따뜻한 후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나와 살아갈수록 제가 가진 이 평범함이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받은 사랑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좋은 기회가 닿아 파랑새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멘토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바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이 아이들에게 동정이 아닌 위로로 들리기를." 아이들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 자란 내가, 나이도 그들과 고작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내가 선부르게 한 말이 자칫 동정으로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어떤 문제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거리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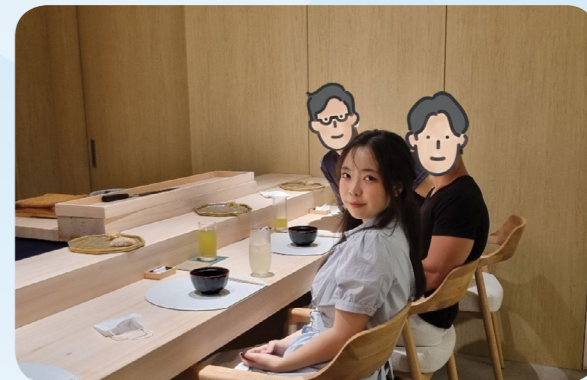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그 과정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위치의 세 멘토가 다섯 명의 아이들을 만나 함께 두 해를 성장했습니다.

"내 말이 동정이 아닌 위로로 들리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4기 멘토로 활동했던 윤다운입니다. 얼마 전 파랑새, 꿈날 4기 멘토로서 활동을 마무리하였고, 2년 동안 함께한 멘토 활동을 돌아보며 저와 제 멘티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6월 멘토링 활동 중 베이킹 클래스



▲ 아이들과 함께한 맛있는 저녁식사 시간

'꿈날'은 이십대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억

우리는 서로 어울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제빵을 배워보고, 자립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또래처럼 연애상담도 하고, 언니나 누나의 위치에서 진로상담도 하며 두 해를 함께 보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하나둘 자립해 취직을 하거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무사히 사회에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 되려 멘토들을 성장시켜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랑새, 꿈날은 이십대 초반의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잡았고, 아이들,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파랑새, 꿈날 4기 멘토로서 활동을 마무리하며 2년간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의연하게 사랑을 나눠주고자 6기 멘토로 또 한 번 활동하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와 인연, 든든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홀트아동복지회와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리 아동복지팀 서혜림



▲ 9월에 있었던 플라워 클래스를 마치고



‘더불어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통로

홀트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함께한 100세 한정옥 후원자님 인터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바쁘게 지나고 있습니다. 홀트 가족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1924년 1월 5일(음력)에 태어나 무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한정옥 후원자님을 만나 100세 건강 비결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정옥 후원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의 원천은 ‘신앙’과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한정옥 후원자님 부부의 ‘사랑을 행동으로’

한정옥 후원자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3남 2녀를 키워내셨습니다. 자녀들의 기억 속에 한 정옥 후원자님은 자녀를 엄하게 교육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일을 적극 응원해주신 현명한 어머니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의견을 존중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1942년 일제강점기 때 결혼하고, 한국전쟁 중 1·4 후퇴 때 (1951년) 고향 함경북도 함흥을 떠나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이 더욱 생각나는 명절이 돌아오면 온 가족이 북한산에 올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셨답니다.

한정옥 후원자님 못지않게 남편 김익순님도 구두담이 소년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도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김익순님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경찰이라는 강인함 속에 따뜻한 마음을 지니셨던 남편이자 아버지로 기억된다고” 전해줍니다.

김익순님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로 전쟁 당시 북한군의 의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개성에서 피난시켜 친자녀인 다섯 남매와 함께 키웠다고 합니다. 전쟁고아를 입양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창립자 해리 홀트씨의 모습과 닮아 있어 인터뷰 내내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셋째딸 유(김)영희님이 “큰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예요.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라고 말하자, 한정옥 후원자님도 “남편이 그 아이들을 개성에서 피난시켜 데려왔어요. 그때 부산에서 처음 만났지요. 당시 피난길에 영희가 폐렴에 걸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는데 (개성에서 피난시킨) 큰딸이 아픈 영희를 안고 달래가며 돌봐줘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어요” 하고 웃어 보이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큰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 딸 보고 싶다”라는 말로 그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3대가 실천하는 ‘더불어 나누는 삶’

한정옥 후원자님은 홀트뿐 아니라 탈북 청소년 지원 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도 후원하고 부천 소재의 여성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2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1984년 환갑을 맞아 시설 거주자들과 함께 보냈던 생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큼 뜻깊었다고 합니다.

“환갑잔치 대신 떡과 과일에 생필품, 용돈까지 마련하여 신당동에서 부천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가는 내내 선물을 전해 줄 생각이 기뻐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선물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을 후원자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 100세 생일기념 가족사진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별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써도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한정옥 후원자님의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사랑의 실천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최근 한정옥 후원자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자님과 해외에 살던 자녀들이 몇 십년 만에 모두 모여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홀트의 가족이 되어준 한정옥 후원자님은 자녀, 사위,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한정옥 후원자님의 가족 모두 ‘나누며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와 실천이 남다른 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정옥 후원자님의 선한 영향력이 100년을 이어가듯 홀트 역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글 나눔지원팀 권혜란

*故 한정옥 후원자님은 지난 3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홀트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콜릿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 러닝으로 행복을 나눠요”

선 홍보대사의 미혼한부모 응원 이벤트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사랑의 표현으로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셨나요?
지난 2월 11일, 선 홍보대사는 ‘발렌타인데이 기부런’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지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현하는 선 홍보대사. 사랑의 온도 1도 상승의 의미라고 해요.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행사에 앞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100명의 러너들을 모았는데요. 선 홍보대사는 행사 전날 우리 회에 방문해 러너들 대신 그들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손편지로 쓴 데 이어, 행사 당일에는 100명의 러너들 선두에 서서 한강 5km를 달리며 만나는 시민들에게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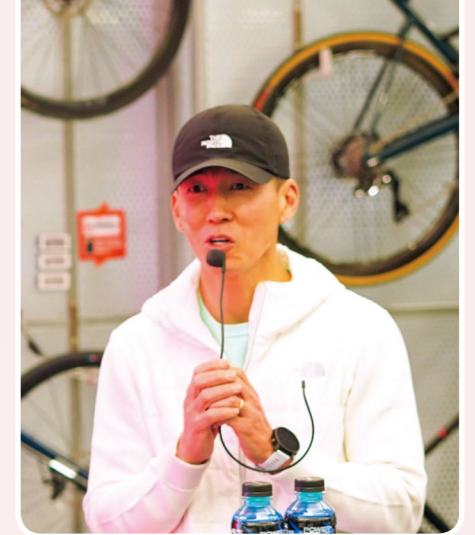
이번 기부런 행사에는 인플로언서 러닝전도사 안정은님도 함께했는데요, 현재 아기를 임신중인 안정은님은 “미혼한부모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러닝 후 선의 손편지와 초콜릿을 받아든 참가자들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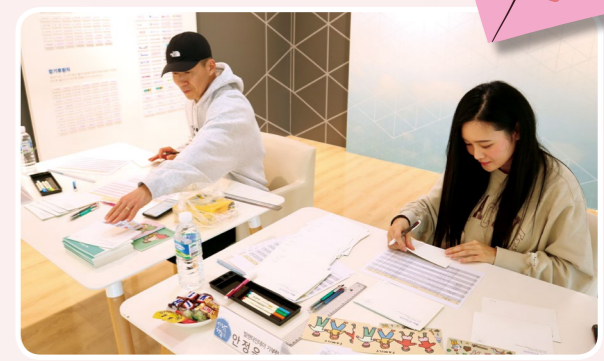
선 홍보대사 바로 뒷자리에서 달리는 영광을 누렸다는 한 러닝 참가자는 “건강을 도모하고 기부도 할 수 있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기부의 아이콘 선 홍보대사와 함께할 수 있어 더 기뻐다”는 기분 좋은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2007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어온 선 홍보대사는 소외계층 아동의 꿈을 지원하는 ‘꿈동이’ 후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캠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한 플라마켓에서 ‘지금은 선물이다’라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더 큰 나눔의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글 사회공헌협력팀 김현영 팀장



▲ 발렌타인데이 기부런의 시작을 알리는 선



▲ 참가자 100명이 전할 사랑의 메시지를 직접 쓰고 있는 선 홍보대사와 안정은 인플로언서



▲ 거리에서 만난 시민에게 나눠준 한부모지원사업 소개 카드



홀트아동복지회 X ZERO PER ZERO

가족을 만드는 마음으로



홀트아동복지회X제로퍼제로 일러스트 재능후원

어느 날 망원경을 거닐다가 한 소품샵에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따뜻한 분위기의 그림과 소품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양한 가족 일러스트'였습니다.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의 모습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에 보는 사람까지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과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순간 홀트의 다양한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미혼한부모, 시설청소년,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사는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눈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일러스트가 제로퍼제로(ZERO PER ZERO)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홀트아동복지회의 사업 방향성인 '가족을 찾아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가족을 지켜주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일러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제로퍼제로 작가님에게 일러스트 재능후원을 요청했고, 작가님도 '소외된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해 재능후원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알리기 위해 참여"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및 NGO 기관들과 주로 협업했던 제로퍼제로 작가님은 "그동안 상품 판매를 위해 한정된 가족의 모습만 그려왔는데, 이번 후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상품에 담아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 뜻을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님들에게도 이런 뜻깊은 재능후원을 알리고자 제로퍼제로의 일러스트로 제작한 연차별 후원자 감사카드를 발송했습니다. 감사카드에 후원자님의 후기를 남길 수 있는 QR코드를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풍성한 답변을 남겨주었습니다.

제로퍼제로의 일러스트로 소개하는 홀트아동복지회



가족을 찾아줍니다

홀트 부부

설립자 해리 홀트·버타 홀트 부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임을 깨닫고, 한국 고아 여덟 명을 입양하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줍니다

한부모 가정

이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낸 한부모의 삶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지원하고, 미혼한부모가 역량을 키워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자립을 돕습니다.



가족이 되어줍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매년 약 2,600명의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아가 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진로 교육은 물론, 정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소외된 아동과 가정에 희망을

장애인 복지사업

홀트 부부는 중증장애로 새로운 가정을 찾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홀트복지타운'을 세워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기술을 배워 홀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양육부터 자립까지 전 생애에 걸친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금액을 후원하지도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살아가는 데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후원을 신중하게 시작한 만큼 삶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제 남편도 소소하게나마 다른 곳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런 후원증서를 받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젠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좋네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보내주신 후원증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돕는 마음'

13년간 아이들과 함께해온 특별한 후원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 2009년 진행된 첫 꿈동이 여름 캠프

'꿈과희망지원사업'은 선정혜영 부부가 2009년에 광고 출연료 1억원으로 1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후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2010년부터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2011년부터 홀트고역기부자 모임 탐리더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쿠시먼&웨이크필드가 후원에 합류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후원자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아이의 꿈은 소중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고위직을 꿈꾸는 저소득층 청소년은 100명 중 1명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또래의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격차로 아이들의 장래희망마저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은 자신의 꿈보다 생계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의 꿈은 소중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고자 '꿈과희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꿈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으로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해주는 특별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인데요. 2010년부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꿈과희망지원사업'에 함께하며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10만원의 교육비를 후원한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해준 덕분에 오늘도 아이들은 꿈을 꾸입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돕는 일'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는 후원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아이들이 없는지 한 명 한 명 보살피고, 교육 목적에 맞게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점검하는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세상에 좋은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해준 덕분에 오늘도 아이들은 꿈을 꾸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아이들의 꿈을 위해 응원하고 지지해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일'에 앞장서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되겠습니다.

글 나눔기획팀 김지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꿈동이의 이야기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피아노 교재도 사고, 영어, 수학 책을 사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올해에는 콩쿠르에도 나갈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제 아름다운 성장을 지켜봐주세요!”

“후원자님 덕분에 저는 댄스스포츠 학원이랑 태권도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를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꿈동이의 꿈과 희망을 소개합니다



♥ 멋진 화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 치과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면 행복할 거 같아요.



♥ 미래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 꿈동이 지원을 받아 멋진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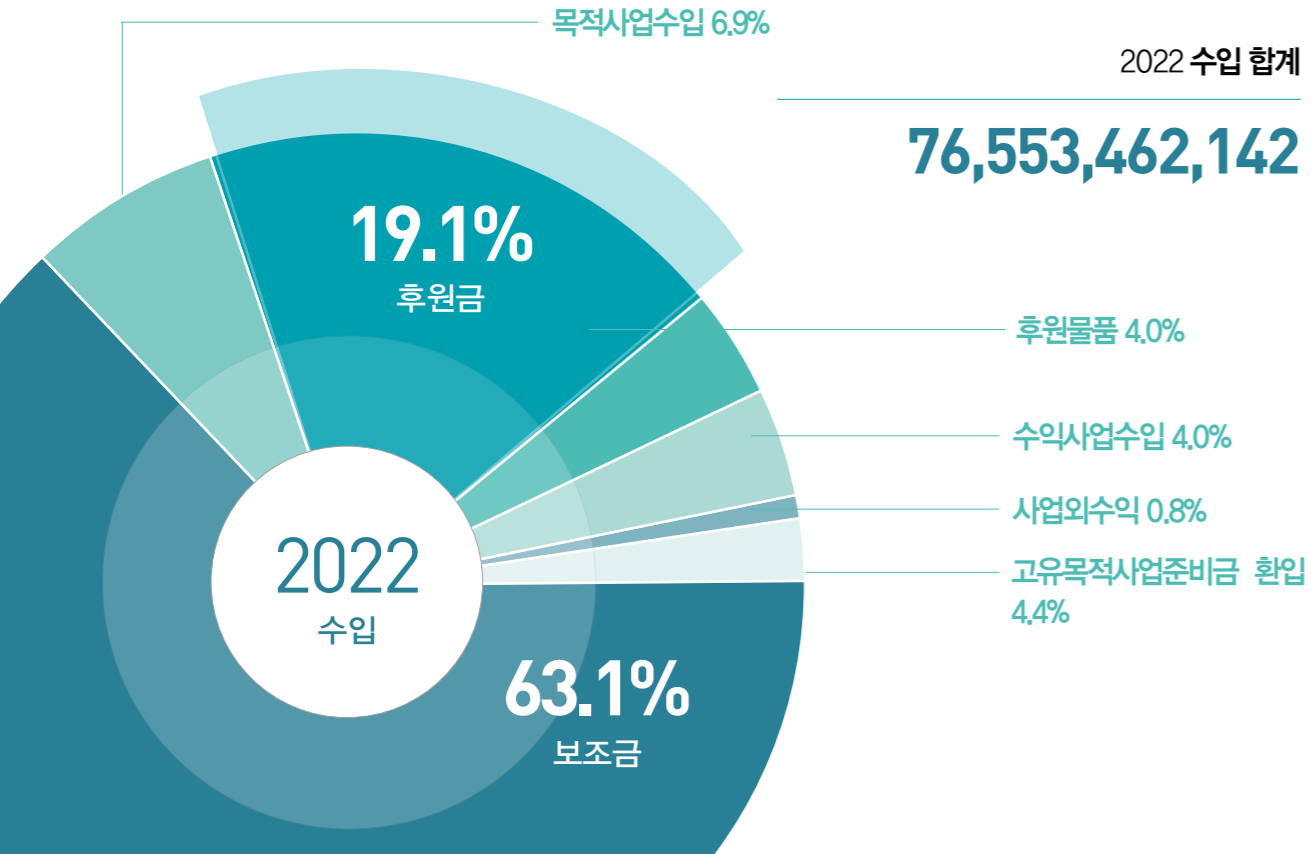
♥ 아이돌 가수가 되어 춤추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수많은 관객을 보며 좋아하는 제 모습이에요.

▲ 2022년 꿈과희망지원사업 꿈 공모전 수상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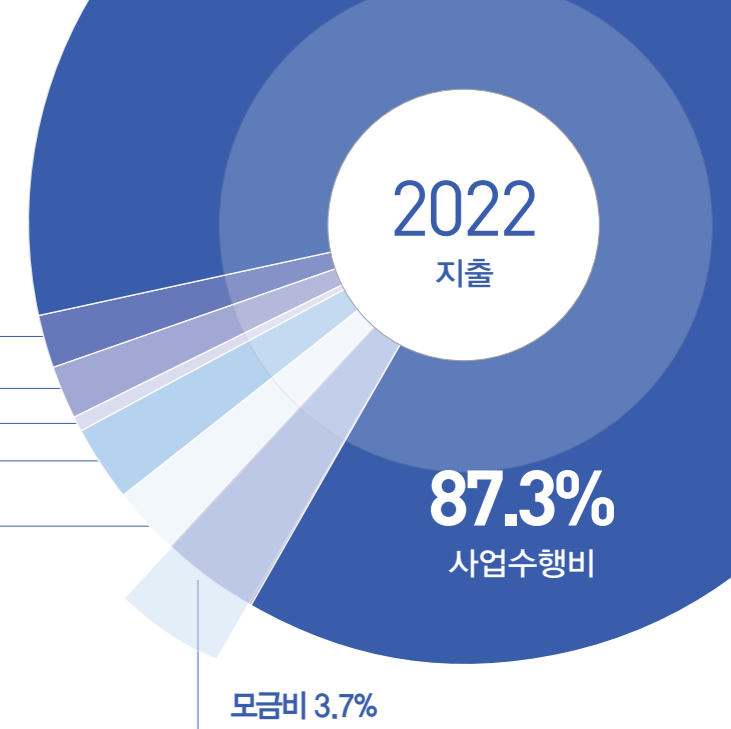
2022년 운영결산보고

수입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원
후원금	개인·기업·단체의 정기 및 일시 후원금	14,642,281,270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모금	11,333,747,987	
장애인복지	장애인 재활, 치료 등을 위한 모금	1,513,234,280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모금	1,139,679,364	
미혼한부모가족복지	미혼한부모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모금	618,003,639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를 위한 모금	37,616,000	
후원물품	개인·기업의 후원물품	3,077,410,542	
보조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8,327,610,583	
사업수입	목적 사업 수입	5,294,291,951	
수익사업수입	임대사업 등	3,072,408,210	
사업외수익	이자수입 등	639,241,1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1,500,218,461	
합계		76,553,462,142	



당기운영이익 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2.0%
 사업외비 0.0%
 수익사업비 2.6%
 일반관리비 2.6%



2022 지출 합계

76,553,462,142

지출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원
사업수행비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	66,835,699,934	
아동·청소년복지사업	국내·외 아동, 청소년 양육, 의료, 자립 지원 등 사업비	11,427,581,730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자립, 치료, 재활 지원 등 사업비, 이용시설 사업비	24,386,286,112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관, 심리상담센터 사업비	16,086,134,608	
미혼한부모가족복지사업	미혼한부모가족 생계, 양육, 자립 지원 등 사업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사업비	2,712,528,848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1,133,099,861	
보육·교육사업	특수학교, 어린이집 사업비	11,090,068,775	
모금비	후원금 모금활동 수행 비용	2,837,431,643	
일반관리비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용	1,961,667,536	
수익사업비	수익사업 운영 비용	1,994,263,682	
사업외비	사업외 기타비용	1,855,6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1,500,218,461	
이월금	차년도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이월금	1,422,325,262	
합계		76,553,462,142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5항(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제50조 3항(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에 따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고 있습니다.
- 연 1회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2년도에는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재정운명을 검증받으며 투명한 회계관리 및 성실한 사업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OLT NEWS

본부

11번가, 위기가정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 수익금 기부



11번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천여 곳과 함께 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홀트아동복지회로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세방이의순재단, 자립준비청년 위한 협약 맺어



세방이의순재단은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를 후원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는 솔로 12기 광수' 이희수님의 생애 첫 기부



'나는 솔로' 12기 광수로 출연한 변리사 이희수 후원자님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희수 후원자님의 '생애

첫 기부'이자 '방송 출연료 기부'라는 특별한 후원금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밝게 성장하길 소망하는 후원자님의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성우, 팬클럽 '비타민보이스'와 함께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김민주 성우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 '비타민보이스'와 김민주 성우가 함께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스타와 팬이 함께한 특별한 후원은 따뜻한 응원이 필요한 미혼한부모가정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54회 장기근속위탁모 근속시상식



지난해 12월 27일 입양대상아동을 물심양면으로 양육한 위탁모들의 장기근속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위탁모 근속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5년 근속 2명, 10년 근속 6명, 15년 근속 2명, 25년 근속 2명, 정년퇴임 4명으로 총 16명의 위탁모가 근속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입양가족의 탄생은 위탁모의 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상하신 위탁모들을 포함해 입양대상아동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한 모든 위탁모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트 임직원과 함께하는 '가치이음' 원데이 클래스

지난해 말 홀트 임직원과 함께하는 '홀트 가치이음' 가족공예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홀트 가치이음'이란 홀트가 한부모 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HOLT 공유공방 '가치만들'을 임직원이 직접 체험하며 한부모와 연결됨의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한부모강사와 함께 서로 소통하며 나만의 카드지갑을 만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 '365베이비케어키트' 사업 실시

매년 K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실시해온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의 2023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사회 전반의 경제난을 고려해 예년보다 10가정이 늘어난 총 70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6~11월(월1회) 동안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아기용품(이유식, 기저귀 등)을 제공하며,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장난감과 보습로션'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어서와, 엄마는 처음이지'



지난 겨울, '자존감 높은 자녀로 양육하기'라는 주제로 한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면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서로 소통하는 1:1 맞춤 코칭으로 진행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어머니들의 희망에 따라 '미디어 중독', '학교폭력'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들이 더욱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할 계획입니다.

충청지부

아름다운 나눔행사, 저금통 모금액 전달



지난해 12월 22일 충남 계룡 소재 본부유치원(원장 정미숙)이 주최한 '아름다운 나눔행사'에 참석하여 본부유치원 원아들이 모금한 저금통 모금액 전액을 전달받았습니다. 충청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원아들에게 홀트 소개와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하고 원아들이 모금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위드힘병원과 업무협약식 진행



1월 6일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암케어 전문 병원인 위드힘병원(서울시 강동구 길동)과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위드힘병원 내 암환우를 위해 홀트강동복지관 홀트강동대학 이용자들의 미술작품을 기부하여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KNN문화재단·넥센월석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

1월 13일 KNN문화재단·넥센월석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장학금 전달식 및 설맞이 이웃사랑 쌀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운대구 지역 청소년

HOLT NEWS



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넥센월석문화재단의 쌀(20kg) 209포,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의료봉사단의 명절선물 세트 70개 등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품은 지역 주민 279명과 나누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23 홀트아동복지회 장학금 전달식



1월 31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 66명에게 장학금 약 1억 2천만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꿈을 꽃 피우는 아이들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운들

(주)래피젠 기관방문 후원



1월 10일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주)래피젠에서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엄마와 아기들을 위한 자립기금과 본 기관의 노후 차량 교체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래피젠의 든든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들

'아침새싹 그림 공모전' 개최



지난 12월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과 한부모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5~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침새싹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KTcs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아동이 엄마와 행복했던 추억을 화폭에 옮겨봄으로써 아동의 정서 발달과 한부모가정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춘천시가족센터

'롤러코스터 코딩캠프' 운영



2월 22~23일 춘천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 총 30명에게 '찾아가는 롤러코스터 코딩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또 VR기기가 장착된 VR트럭버스가 센터로 찾아와 어린이들이 버스에 직접 탑승해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체험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전클로버

소중한 내! 특별한 내! 돌잔치 지원

지난 1월 26일 엄마와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돌잔치를 진행했습니다. 탄생부터 백일, 돌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한 대전클로버의 막내에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후원자님!

환경을 위해 '홀트소식 온라인 수신 전환'에 동참해 주세요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1.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로그인 하여 변경. 소식지 수신방법을 '수신안함'으로 변경 후 'SMS, 이메일 수신동의' 선택

#2. 후원자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02)331-7073~7076으로 연락주세요

●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채널로 홀트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해외 빈곤아동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더 큰 가족,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홍보채널 안내

홀트가 진행하는 다양한 후원사업과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의 소식을 QR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홀트아동복지회 blog
blog.naver.com/sayholt







YouTube
youtube.com/loveholt






Instagram
instagram.com/holt_welfare





카카오톡 채널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복지시설 초경준비 여아 지원사업

너의 처음을 함께해!

주최: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INERTIA, Radinery, Cyclean

부모의 부재로 초경준비가 부족한 시설 거주 여아들에게 초경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성장의 설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초경준비물품을 지원합니다.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사회공헌팀 02-331-7178

자립준비청년년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위드유 커뮤니티

WithYOU community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 자기계발 및 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복지팀 02-331-7052

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똑똑한 엄마

한부모가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학습하여 사회의 문을 똑(Knock) 똑(Knock) 두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2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생계·주거·의료·심리정서·교육 5가지 항목의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복지팀 02-331-7054

AHC
PROFESSIONAL AESTHETIC CARE

보송 노세범 선스틱

“세리 언니가
아무거나 쓰겠니?”

끈적임 없는
세범 컨트롤 효과

